

No.20161102-001

제목: 마음대로 식당

저자: 아리마 카오루

페이지수: 256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08월 31일



<내용소개>

20대 후반 요리사 '미카'에 '마음대로 식당'를 통해 얻게 된 휴식 같은 시간

불행은 가장 행복한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다. 현실의 우리들에게도, 소설 속 주인공에게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다. 다양한 소재를 소설로 만들어낸 작가 아리마 카오루의 신간 《변덕쟁이 식당》의 주인공도 그런 비극적 상황을 겪는다.

20대 후반 여성 '호다 미카'의 직업은 요리사다. 그토록 염원해왔던 별3개짜리 레스토랑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게 되지만, 수습직원으로 일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불의의 자동차 사고로 손목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는다. 정직원도 아닌 상태에서 치료를 위해 2개월이나 되는 휴가를 요청할 수도 없었기에 어쩔 수 없이 퇴사를 선택하게 된다. 앞친 데 뒤편 격으로, 2박3일간의 입원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4년 반을 동거했던 연인이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고는 사라졌다. 언젠가 함께 식당을 열자는 꿈을 갖고 모았던 공동저금은 미카의 치료비와 입원비로 대부분 쓰였고 나머지 금액의 절반 정도는 남자친구가 갖고 가버렸다. 남은 것은 변명으로 가득한 남자친구의 마지막 편지와 텅 빈 것 같은 집, 그리고 무직 상태인 자신 뿐. 우울해진 미카는 신이 내린 이른 여름휴가라 여기고 적당히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곳으로 잠시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렇게 찾아낸 곳이 세토내해에 위치한 조그마한 섬이다. 매일 바다를 바라보는 것 외에 딱히 할 일이 없는 이 섬에서, 소박한 규모의 민박에 묵으며 한 달 간의 꿈 같은 휴가를 보내기로 한다.

지나치게 한적한 생활에 지루해질 때 즈음, 고양이를 따라가다 섬의 반대측에서 해매게 된 미카는 <마음대로 식당>이라는 간판이 달린 곳을 발견한다. '안도 유스케'라는 정체 불명의 청년이 주인인 듯한 변덕쟁이 식당은 이름 그대로 내키는 대로 열었다 닫는 곳이었다. 미카는 수수께끼 같은 이 식당을 통해 섬 사람들과 만나 친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게 된다. 마침내 식당과 안도의 정체를 밝혀내는 데 성공한 미카는 차츰 자신의 꿈을 다시 마주하고 정면으로 부딪힐 의지를 되찾는다.

모두들 꿈을 향해 달려가며 넘어지고 슬퍼하기도 한다.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처럼 휴식의 시간이 꼭 필요하다. 비록 주인공이 고난을 겪고 좌절한 상태에서 시작되지만 무겁지 않

고 경쾌하게 전개되는 소설이다. 미카가 섬에 적응하고 아이들과 친해지는 과정이 정말 삶의 휴식처럼 따스하고 잔잔하게 다가온다. 독자들도 섬의 여유로운 분위기에 푹 빠졌다가, 힘을 충전하고 섬을 떠나는 미카를 응원하며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묵다 / 만들다 / 보다 / 사다 / 먹다 / 놀다

<저자소개>

아리마 카오루

도쿄 출신, 호세이대학을 졸업했다. 2009 년 《태양의 하품》이 제 1 회 미디어웍스문고상을 받으며 데뷔하였다. 통판조직 디렉터와 브라이덜 플래너, 허브카페와 게스트하우스 등 다양한 소재를 경쾌한 필치로 그려냈다. 주요 작품으로는 《마법사의 허브티》, 《마네키네코 신사의 야단법석 나날들》, 《꿈꾸는 레시피 - 게스트하우스 와스레나》, 《보태니컬》 등이 있다.

No.20161102-0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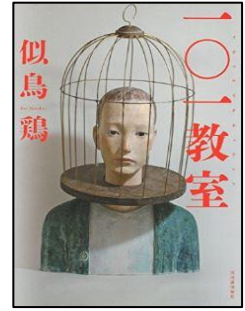
제목: 101 교실

저자: 니타도리 케이

페이지수: 385

장르: 소설

출간일: 2016년 10월 27일



<내용소개>

일본에서 주목 받는 신예 미스터리 작가의 신작!

어느 기숙사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병으로 죽는 사건이 벌어진다. 이게 정말 병사일까?

이 이야기의 배경은 '마쓰다 요시아키'라는 교육자가 설립한 기숙학교 <공심학원>이다. 중등부와 고등부에는 남학생 각 학년 두 학급, 여학생 각 학년 한 학급씩 있으며, 각 학급당 학생 수는 30여명에 불과한 소규모다. '전인교육'을 내세우며 학생 모두가 교내의 엄격한 룰에 따르도록 가르친다. 마쓰다 선생은 TV 프로그램에 논객으로 출연하거나 자신의 저서를 통해, 일본 교육의 질이 점점 저하되고 있으며 학생의 인격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창한다. 그 실천 장소인 공심학원은 딸의 히키코모리 증세가 고쳐졌다, 반항적이었던 아들이 순응적으로 변했다 등 자식문제로 고심하던 학부모들의 후기가 인터넷으로 퍼지며 인기를 얻는다. 마쓰다는 교사의 체벌을 교육적 열의가 담긴 행위라며 옹호하고 일부 학생들은 체벌을 받아야만 깨우침을 얻는다는 주장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다.

소설은 두 명의 시점을 오가며 진행된다. 공심학원의 성공적인 홍보에 관심을 갖고 있던 대학생 '후지모토 타쿠야'는 마침 그 곳의 재학생인 사촌동생 '히데토'를 때문에 체육대회에 참관하고 학생들이 무서울 만큼 일사불란하게 미션을 수행하는 광경을 목격한다. 하지만 얼마 뒤 히데토가 병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했다는 비보를 듣게 되고, 타쿠야는 그의 죽음이 자살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품고 히데토의 죽음을 추적해 나간다. 그 과정에서 공심학원이라는 밀실에서는 '엄격한 지도'라는 명분 하에 비인권적이고 잔인한 행태를 알게 된다. 조사에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은 또 다른 주인공인 공심학원 학생 '오가와 키리토'다. 현장에 있었던 오가와와 시점에서 공심학원의 적나라한 모습이 밝혀지고 타쿠야와 독자들은 진상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과거에 일어난 비슷한 사건사고들을 목인했던 부모들과 히데토의 모친이 보이는 반응은 오싹해질 정도다.

작가 니타도리 케이는 일본에서 주목 받는 신예 미스터리 작가다. 호러와 추리, 청춘 학원물이 결합한 《이유가 있어 겨울에 나온다》는 한국에서도 호평을 받았으며 배우 타케이 에미가 주연을 맡은 코믹 수사드라마 <전력 외 수사관>의 원작 소설가로도 알려져 있다. 《101교실》은 유쾌

한 요소가 전혀 없는, 독자조차도 읽으면서 앞이 막막해지고 짝 막힌 것 같은 느낌을 받을 글이다. 마지막 한 줄기 희망을 놓지 않은 것은 그럼에도 무언가를 믿고 싶은 작가의 바람일 것이다. '설마 이런 일이 현실에 있을까? 하지만 어딘가에서 정말 벌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피어 오르게 하는 점이야말로 니타도리 케이의 가장 훌륭한 재능일지 모른다.

<저자소개>

니타도리 케이

1981년 치바 현에서 태어났다. 아유카와 데쓰야 상 가작 입선 《이유가 있어 겨울에 나온다》로 데뷔하였다. 매력적인 캐릭터와 유머러스하고 리드미컬한 문장, 정교하고 치밀한 트릭이 돋보이는 작품들로 폭넓은 독자층의 인기를 얻고 있다. 앞으로가 더 주목되는 젊은 미스터리 작가다. 데뷔작부터 이어지는 〈시립고교〉시리즈와 드라마화 된 〈전력 외 수사관〉시리즈, 〈가에데가오카 동물원〉시리즈 등 시리즈화 된 작품도 많다. 그 외 《계산대까지의 추리- 서점의 명탐정》, 《셜록 홈즈의 불균형》등이 있다.

No.2016110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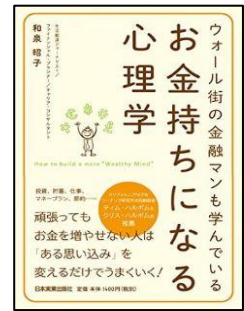
제목: 월스트리트의 금융맨도 공부하는 "부자가 되는 심리학"

저자: 이즈미 아키코

페이지수: 208

장르: 금융, 심리

출간일: 2016년 10월 27일



<내용소개>

베테랑 금융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자가 되기 위한 돈에 대한 마음 가짐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지금보다 더 풍족해진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꿈꾼다. 그러나 요즘 같은 세계적인 장기불황, 저성장, 저금리 시대에서 월급을 모아 자기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은 매우 버겁다. 유례없는 취직난에 허덕이는 젊은 세대는 정기적인 수입원을 얻는 것부터가 난관이다. 부잣집에서 태어나지 않고도 부유해지는 것은 로또 당첨 같은 행운이 뒤따라야만 이뤄질 수 있는 꿈처럼 요원하다. 현실적으로 조금이라도 부자에 가까워질 수 있는, 현재보다 조금만 더 여유로운 생활을 손에 넣는 방법은 없을까?

이 책은 부자가 되는 길을 가로막는 돈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을 찾아내어 긍정적으로 바꾸고, 스스로가 원하는 성공과 부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저자는 생활경제 저널리스트 겸 파이낸셜 플래너(FP)로 오랫동안 활동해 온 금융 전문가다. 세계 금융의 중심인 월스트리트의 금융맨들도 수강하는 미국 NLP&코칭 연구소의 <The Wealthy Mind Seminar (NLP 머니 클리닉)> 프로그램 내용에, 저자가 경험을 통해 얻은 스킬과 노하우를 가미하여 돈을 모으는 방법을 전한다.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나는 능력이 부족해 부자가 될 수 없다', '돈은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많이 갖고 있지 않는 편이 좋다', '돈을 얻으면 그대신 다른 소중한 것을 잃게 된다' 등 돈에 관한 부정적인 발상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행동과 생각에 제약을 만들고 부자가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는다. 우선 1장에서는 스스로 돈에 대해 어떤 설계도를 갖고 있는지 알아본다. 2장에서는 그 내용을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전한다. 개인의 과거 경험에서 만들어진 돈에 대한 고정관념 즉 잘못된 확신을 잠재의식에서 건져내, 새로운 내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3장에서는 앞서 만든 새로운 확신을 바탕으로 머니 플랜을 재정립한다. 마지막 4장에서는 돈을 불리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자산의 종류와 실행 방법을 풀어낸다. 기존에 보유한 인적 자산, 인맥, 금융자산, 시간이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알 수 있다.

돈이란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 나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다. 돈에 지나

치게 얹매이고 휘둘리며 실패를 겪고 있다면 돈에 관한 인식부터 되돌아봐야 한다.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장래의 모습을 명확히 설정하고 잘못된 신념을 바꿔보도록 하자.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이 책은 각자 원하는 부자와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미국의 금융맨들도 수강하고 있는 “부자가 되는” 프로그램

제 1장: 돈에 대한 당신의 잠재의식은 어느 정도일까?

제 2장: 자신의 잠재의식 중 확신(Belief)을 다시 써 보자

제 3장: 새로운 확신(Belief)에 기초하여 머니 플랜을 세워보자

제 4장: 돈을 불리기 위해 활용해야 할 4가지 자산

<저자소개>

이즈미 아키코

생활경제 저널리스트 겸 파이낸셜 플래너. 요코하마국립대학 졸업 후 출판사와 방송국을 거쳐 프리 캐스터로 전직하였다. NHK를 중심으로 뉴스와 정보 프로그램을 담당하였다. 1995년 CFP를 취득하고 현직에 이르렀다. 미디어 출연과 강연, 개인상담 등을 통해 돈에 관한 정보를 전하는 것 외에 (주)Platinum Concierge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과 사업회사에 대한 컨설팅을 맡고 있다. 와세다대학 대학원 파이낸스 연구과를 수료했다(파이낸스 MBA).

No.20161102-004

제목: 종이의 이야기

저자: 오다이카 카즈에(글), 고바야시 키유(사진)

페이지수: 255

장르: 인문, 교양

출간일: 2016년 07월 17일



<내용소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존재하는 '종이'를 주제로 삼은 소박한 여행

종이는 항상 2인자였다. 사람들은 감정을 표현하고 지식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책과 편지 등을 아주 긴 시간 동안 사용해왔지만 주목 받는 것은 언제나 글씨였다. 종이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람들의 머리에서 한 발 물러나 있어야 했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종이' 자체에 매료된 사람이다. 2005년 취재를 위해 만났던 디자이너가 자신과의 인터뷰를 계기로 운명처럼 활판 인쇄와 종이에 더욱 매력을 느끼고, 종이를 이용한 디자인 공예 제품을 선보이는 가게를 세워 운영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 저자는 자기 내면의 종지와 일찌감치 조우하는 데 성공한 에토 키미야키에게 영감을 얻어, 역시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종지들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한다. 그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본문에서 저자는 종지와 관계된 각계 각층의 사람들을 소개하며 '종지'와 '사람'의 이야기를 고조시켜 엮어냈다. 1장에는 염색공예작가 유노키 사미로, 무사시노 미술대학 명예교수 요코미조 타케시, 승려 마스노 슌요, 장정가 히라노 코가 등 다양한 분야의 13인이 등장하여 귀중하게 소장해 온 종지들을 공개한다. 베이커리의 종지봉투, 어패럴 메이커의 포스터, 휴지 걸면을 감싸고 있던 포장지, 여행지에서 보낸 편지, 1960년대의 소년만화잡지 등 너무나 좋아해서 수집해왔거나 개인적인 추억이 담겨 있는 대상들이다. 2장은 북 디자이너 모리사키 타다시, 디자이너 에토 키미야키, 요리카페를 운영하는 탤런트 치하루의 10년 전과 후를 작품 및 수집품을 통해 비교해보는 내용이다. 3장에서는 25년 만에 리뉴얼 된 시세이도의 패키지, 3대째 활판 인쇄를 이어 온 키쿠가와 인쇄소, 일본 전통 종이 공예 작가 모리타 치아키의 작품 등 저자가 알리고 싶은 의미 있는 종지들을 소개한다. 인상적인 가게 포장지는 샘플로 수록되어 있다. 마지막 4장에서는 부직포, 창호지 견본첩, 피카소가 애용했다는 전통지로 만든 명함, 20년간 한결같이 사용해 온 스케줄러 등을 통해 자기 삶에서 좀 더 인상적이었던 종지들을 소개한다.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인명 및 단체명, 관련 용어들은 해당 페이지 하단에 간략한 설명을 붙였으며 종지에 관련된 아름다운 이미지들이 풍성하게 삽입돼 눈길을 사로잡는다.

종지는 클릭 한 번으로 만들었다 삭제하고 덮어쓰기를 할 수 있는 컴퓨터 문서와 다르다. 다소

불편한 구석도 있지만, 그만큼 진중하다.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사람들의 곁을 지킨다. 이 책을 통해 평소 무심코 넘겨버린 종이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해보자.

<목차소개>

- 1장: 종이와 사람들
- 2장: 10년 전과 10년 후의 종이
- 3장: 종이를 만나러 가다
- 4장: 종이와 나

<저자소개>

오다이라 카즈에(글)

작가, 에세이스트. 나가노 현에서 태어났다.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사회에 넘쳐 흐르는 물건·일·가치관을 테마로 다양한 곳에 글을 집필해 왔다. 저서로는 《도쿄의 부엌》, 《정크 스타일》, 《매일 산책으로 발견하는 행복》, 《쇼와 어휘 사전》등이 있다.

고바야시 키유(사진)

사진가. 1968년생. 지방지 기사를 거쳐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음식과 생활에 관련된 물건을 중심으로 촬영한다. 《4살부터 키친》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1102-005

제목: 12가지 대화로 다시 배우는 사회학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

페이지수: 315

장르: 사회

출간일: 2016년 10월 18일



<내용소개>

일본을 대표하는 12인의 사회학자가 가깝고도 먼 '사회학'을 통해 현대 일본을 바라본다

사회학은 인간 사회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매우 단순한 정의지만, '그래서 사회학만이 해낼 수 있는 것은 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사실 전공자조차 답변하기 어렵다. 경제학, 역사학, 심리학, 철학 등 인간 사회의 면면을 파헤쳐 들어간 학문은 '사회학'외에도 이미 많기 때문이다. 인문 쪽은 물론 최근에는 인공지능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사회'의 외연은 이과 공학 쪽으로도 크게 확장되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사회학의 역할은 무엇일까? 그 관점에서 바라본 현대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 책은 일본의 대표 사회학자 12인이 현대 일본 사회를 바라보는 내용이다. 사회학자 1인과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가 대담을 나누며 누구나 가질 법한 질문에 답변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사회학은 정의는 너무 간결하거나 너무 난해한 정의를 갖고 있어서 '뭔지 잘 모르겠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따라붙는 굴욕을 안게 되었다. 그래서 저자는 독자들이 사회학에 갖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얼마나 재미 있는 학문이며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인지 알려주고자 한다. 우리들이 현재 안고 있는 여러 문제에 학자들은 각각의 전문 분야를 바탕으로 어떻게 진단을 내리는지, 날카로운 관점을 배울 수 있다.

제일 먼저 '오구마 에이치'와 일본의 사회학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토 토시키'와는 사회학적 사고 방식, '우에노 치즈코'와는 연구와 운동 사이의 사회학의 사용 방법, '니헤이 노리히로'와는 사회학의 규범, '미야다이 신지'와는 사회학의 쇠퇴, '오오사와 마사치'와는 사회학의 도전을 주제로 의견을 주고 받는다. '야마다 마사히로'와는 가족사회학에서 본 일본, '스즈키 켄스케'와는 공공사회학의 역할에 접근한다. 이후 '하시즈메 다이사부로'에게 사회학, '키타와 토오루'에게 계량사회학, '혼다 유키'에게 교육사회학에 대해 질문하고 '카이누마 히로시'와 사회학의 장래에 대해 이야기하며 마무리한다. 각 장 도입부에는 해당 학자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 미리 배경 지식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사회학의 매력을 다양한 각도에서 알린다. 비록 일본 사회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겪는 문제의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며 읽어볼 만하다. 제목 그대로 저자가 사회학에 대해 일신하는 계기로 삼은 책인 만큼, 사회학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며 무엇을 위한 학문인지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보탬이 될 힌트가 가득하다. 사회학을 즐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최선의 입문서로서 추천한다.

<목차소개>.

- I. 오구마 에이지 선생에게 <일본의 사회학>을 묻다!
- II. 사토 토시키 선생에게 <사회학의 사고방식>을 묻다!
- III. 우에노 치즈코 선생에게 <사회학의 사용 방법>을 묻다!
- IV. 니헤이 노리히로 선생에게 <사회학의 규범>을 묻다!
- V. 미야다이 신지 선생에게 <사회학의 쇠퇴>를 묻다!
- VI. 오오사와 마사치 선생에게 <사회학의 도전>을 묻다!
- VII. 야마다 마사히로 선생에게 <가족사회학에서 본 일본>을 묻다!
- VIII. 스즈키 켄스케 선생에게 <공공사회학의 역할>을 묻다!
- IX. 하시즈메 다이사부로 선생에게 <사회란 무엇인가>를 묻다!
- X. 키타와 토오루 선생에게 <계량사회학이란 무엇인가>를 묻다!
- XI. 혼다 유키 선생에게 <교육사회학이란 무엇인가>를 묻다!
- XII. 카이누마 히로시 선생에게 <사회학의 미래>를 묻다!

<저자소개>

후루이치 노리토시

1985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 박사과정에 재적 중이다. 게이오기쥬쿠대학 SFC연구소 방문 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전공은 사회학이다. 일본학예진흥회 <育志賞>을 수상하였다. 《희망난민》, 《우에노 선생님, 허락 없이 죽으면 곤란해요》, 《절망의 나라의 행복한 젊은이들》, 《아무도 전쟁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일본은 비뚤어져 있다》, 《아이는 국가가 키워라: 보육원 의무교육화》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No.2016110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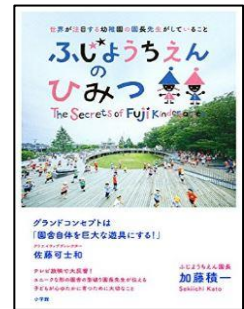
제목: 후지 유치원의 비밀

저자: 가토 세키이치

페이지수: 228

장르: 교육

출간일: 2016년 07월 22일



<내용소개>

세계에서 주목 받는 '후지 유치원'의 방침과 교육에 대한 생각을 원장이 직접 전한다

유치원은 가정과 더불어 유아의 성장과 교육을 책임지는 중요한 축이다. 예전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집에만 있는 아이들도 꽤 있었지만 이제는 필수 코스처럼 유치원을 거치게 되었다. 부모 대신 몇 시간 돌봐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나름의 교육 철학을 갖고 원생들을 가르쳐야 하는 사회적 책임감도 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 교사가 아이를 몰래 학대하다 발각되는 사건이 사라지지 않는 것 역시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일본 도쿄의 교외에 위치한 '후지 유치원'은 세계적으로 주목 받아왔다. 독특한 설계 덕분에 다수의 건축상을 수상하였고 자유로운 교육 방식이 알려지며 일본 내 최상의 교육기관으로 손꼽히고 있다. 2015년에는 SBS의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취재 및 방송하여 한국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후지 유치원 건물은 중앙의 잔디밭을 중심으로 교실이 동그랗게 배치된 타원의 도넛 형태다. 유니클로와 세븐일레븐 등 유수의 브랜드의 브랜딩을 맡았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사토 카시와, 후지 유치원의 실제 건축 설계를 맡은 데즈카 부부, 이 책의 저자이자 유치원의 경영을 맡고 있는 가토 세키이치는 수 차례에 걸친 의논 끝에 현재 형태의 원사를 세우게 되었다. 유치원 건물 자체를 아이들의 교육 도구로 삼은 것이다. 드넓은 건물 지붕은 아이들이 웬지 모르게 달리고 싶어지도록 약간 기울어져 있다. 잔디밭에는 놀이 기구가 없고, 아이들은 직접 놀이를 만들어서 하거나 안전하게 그물이 쳐진 나무 위를 오르내리며 뛰어 놀게 된다. 유리문을 열면 외부에 전면 개방되는 교실 구조 또한 적당한 잡음 속에서 집중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다.

후지 유치원의 기본 방침은 '아이는 스스로 성장할 힘을 갖고 있다'는 마리아 몬테소리의 주장에 기초한다. 일상의 움직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오감을 사용하는 감각교육, 언어 계산 교육, 계절에 따라 이뤄지는 계절 교육을 소개하며 어른의 할 일은 단지 아이들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임을 강조한다. 아이들이 후지 유치원에서 보내는 생활상, 부모가 육아 중에 저지르기 쉬운 잘못에 대해 조언하는 내용은 매우 실용적이다. 마지막으로 유치원에서 일하는 교사가 행복해야 한다면 원장으로서 실천 중인 교사 채용 및 근무 방침에 대해 설명한다.

후지 유치원은 아이를 위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한 다음 파격적인 결정을 감행했기에 세워질 수 있었다. 자신이 선택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키워내고 싶다는 후지 유치원의 비밀을 통해, 올바른 육아 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자.

<목차소개>

- 1장: 유치원 건물 자체가 육아의 도구
- 2장: 후지 유치원 식 몬테소리 메서드
- 3장: 유치원에서의 아이들
- 4장: 육아에 정답은 없다
- 5장: 일하는 선생님이 행복해질 것

<저자소개>

가토 세키이치

1957년 도쿄에서 태어났다. 호세이대학 사회학부를 졸업하고 일반기업 근무와 회사 경영을 거쳐 후지 유치원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많은 사회경험, 자식을 둔 부모로서의 시선을 살려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전하고 있다. 후지 유치원 외에 도쿄도 인증 보육소 〈스마일 에그즈〉, 탁아소 〈스마일 키즈〉도 경영하고 있다.

No.20161102-007

제목: 책방 주인이 되고 싶다: 오키나와의 '울랄라 서점' 운영기

저자: 우다 도모코

페이지수: 206

장르: 에세이

출간일: 2015년 06월 08일



<내용소개>

오키나와의 작은 책방 '울랄라 서점'의 에세이를 통해, 책 파는 일의 일면을 체험한다

저자인 우다 도모코는 일본의 대형 서점 '준쿠도 서점'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오키나와 나하 시에 위치한 소규모 헌 책방의 주인이 되었다. 2013년에 발표한 에세이 《오키나와에서 헌책방을 열었습니다》에 이어 2년 만인 2015년에 '울랄라 서점'의 주인으로서 또 하나의 책을 선보인다. 《책방 주인이 되고 싶다》는 자신의 헌책방에 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그녀의 첫 번째 에세이와 흡사하다. 전작에서는 오키나와로 향하게 된 과정과 막 개점한 후의 일상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업무에 한층 능숙해진 책방 주인으로서 '책을 파는 일'에 더 집중한다. 그녀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을 책을 통해 응원하겠다는 포부를 안고 시작한 일이지만 10년차쯤 되자 안정적인 근무 상태 속에서도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 오키나와 전근으로 해소되지 않던 슬럼프를 없애준 것은, 헌책방의 새로운 주인을 구한다는 공고였다. 그렇게 저자는 오키나와 나하 시의 제1마키시 시장 건너편에 조그마한 헌 책방을 운영하게 된다.

책방에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출판사에서 바로 책을 구입해 판매하는 신간책방, 그 외의 채널을 통해 책을 구입하는 헌 책방이다. 헌 책방은 자신과 지인이 갖고 있는 책을 모아 시작할 수 있고 신간에 쫓겨 시간이 부족할 일도 없다. 대신 베스트셀러 같은 인기 최신 서적과 잡지 같이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상품은 들여놓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좋은 점과 힘든 점을 고루 갖춘 책방의 업무를 총 5개 장에 걸쳐 들여다본다. 첫 번째는 책을 구입하는 것이다. 좋아하는 책은 물론, 책방의 분위기와 주 고객층에 어울리고 보기 드문 특별한 책이라면 무엇인지 잘 몰라도 우선 산다. 2장은 책을 판매하는 일이다. 모든 고객은 취향에 맞는 책을 사서 자신만의 책장을 형성해 나간다. 책 외에 문구류 등을 파는 책방의 이야기도 덧붙인다. 3장에서는 헌책방 운영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책이 넘쳐 흘러 통로 여기저기에 놓여져 있는 광경, 구입한 책을 팔기 전에 손질하는 것 등이다. 4장에서는 홀로 책방을 꾸려 나가며 느낀 점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5장에서는 상점가에 위치한 지역 서점으로서 오키나와의 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저자는 큰 신간책방에서 작은 헌책방으로, 회사원에서 자영업자로, 도쿄에서 오키나와로 이동하며 여러 입장에서 '책방'을 경험하고 고민해왔다. 요즘 유행하는 귀농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실행

하는 중이기도 하다. 저자처럼 소규모 책방을 열고 싶은 이에게는 더욱 유용할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원하는 일을 찾고 실행할 방법을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

<목차소개>

서장: 헌책방, 시작했습니다

1장: 책을 사들이다

2장: 책을 팔다

3장: 헌책방의 백야드

4장: 가게를 지키던 중 혼잣말

5장: 마을의 책을 마을에서 팔다

<저자소개>

우다 도모코

1980년 가나가와 현에서 태어났다. 2002년에 대형서점인 준쿠도 서점에 입사, 이케부쿠로 본점에서 인문서를 담당했다. 2009년 나하점 개점과 더불어 오키나와로 이동했다. 2011년 7월에 퇴직하고 같은 해 11월, 나하 시의 제1마키시 공설 시장 건너편에 <시장의 헌책방 울랄라>를 열었다. 2014년 제7회 <(이케다 아키코 기념)나, 결국 Nobody 상>을 수상했다.

No.201611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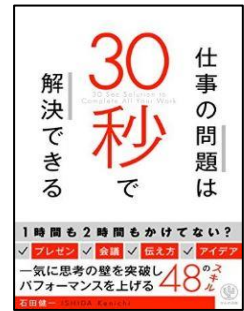
제목: 업무 문제는 30초면 해결할 수 있다!

저자: 이시다 켄이치

페이지수: 176

장르: 비즈니스

출간일: 2016년 10월 19일



<내용소개>

사고의 벽을 단숨에 돌파하여 바로 성과로 이어지는 궁극의 48가지 스킬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에 대처하는가’는 곧 업무 능력 평가로 직결된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해내므로 효율적이고 성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 지점에서 고민과 한계를 느끼는데, 단시간 내에 사고방식과 시점을 바꿔가며 바로 행동하는 방법을 깨우치고 실천하는 것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단 30초면 업무 혁명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광고업계에서 활약했던 저자는 개인과 기업 브랜드가 강점과 매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도록 지원해 온 컨설턴트로서, 그 동안 만난 초일류 비즈니스맨들의 공통 법칙을 체계화했다. 자신의 경험을 덧붙여 정리한 내용은 전하는 방법, 프레젠테이션, 아이디어, 커뮤니케이션, 영업, 동기부여 등 크게 6개 부문으로 나뉜다. 모두 ‘30초’ 만에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다. 가장 중요한 기본 원칙 3가지는 첫째, 목표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으로, 인생과 일 모두 해당된다. 두 번째는 단순 작업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분의 시간을 만들어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니멀&스몰 스텝에 따라 목표를 세분화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목표를 가능한 작게 쪼개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고 성취함으로써 실천력을 높여갈 수 있다.

이외에도 저자는 ‘전하는 방법’편에서 자신의 주장과 논거, 지시 내용을 상대방에게 알기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법과 듣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룰을 설명하고 이를 응용해 프레젠테이션의 달인이 되는 팁까지 제시한다. ‘아이디어’ 편에서는 팀과 개인의 발상 능력을 향상시킬 실용적인 스킬을, ‘커뮤니케이션’ 편에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진심을 읽어내는 방법, 성과가 결정되는 회의 초반 30초에 집중하는 방법 등 비즈니스 현장 곳곳에서 유용한 비결을 공개한다. 마지막으로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영업직이 알아둬야 할 실무적인 룰과 스스로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30초 동기부여 방법들을 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본문은 독자가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일러스트와 도표를 적절히 사용하여 지루하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30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다. 당연한 것을 ‘지금 바로 하는가’ 혹은 ‘고민만 하다 멈춰

끝내 하지 않는가' 순간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의식하지 못하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시간이지만 이 책을 통해 일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더 이상 일에 쫓기지 않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목차소개>

서장: 일을 30초만에 끝내는 사람의 원칙

제 1장: 전하는 방법

제 2장: 프레젠테이션

제 3장: 아이디어

제 4장: 커뮤니케이션

제 5장: 영업

제 6장: 모티ベーション

<저자소개>

이시다 켄이치

퍼스널 코치, 브랜딩 컨설턴트. 1993년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대형 소비재 메이커 회사에 입사하였다. 화장품 부문 영업에서 점포 별 매상 전국 1위에 올랐으며 광고 섹션으로 이동한 다음에는 샴푸, 핸드숍, 세안용 세제 등을 맡았다. 주력 브랜드의 TV 라디오 CM과 잡지광고 제작, 브랜드 전략, 카피라이팅, 네이밍 개발을 담당했으며 신제품 개발 프로모션과 더불어 통셀러 상품의 브랜드스토리 작성에도 참여했다. 광고업계에서 권위 있는 총무대신상/ACC그랑프리를 비롯해 광고덴츠상, 후지산케이그룹 광고대상 최우수상(모두 라디오 부문)등 다수의 수상작품을 프로듀스 하고 이후 TV, 잡지, WEB, PR등의 미디어플래닝 업무에 종사하였다. 데오드란트 제품의 신CM 개발에서는 TV의 정보 프로그램을 비롯해 200개 이상 미디어에 노출되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14년에 독립하여 현재는 개인 및 기업을 대상으로 퍼스널 코치 및 브랜딩 컨설턴트로서 활약 중이다. 선전·프로모션의 경험을 살려 본래의 강점과 매력을 끌어내는 코칭과 브랜딩 구축을 제안한다. 저서로는 《말하지 않는 업무 기술》이 있다.

No.20161102-009

제목: 투명한 개 메이

저자: 츠지 타카시(글), 단지 요코(그림)

페이지수: 104

장르: 아동 문학

출간일: 2016년 08월 06일



<내용소개>

초등학생 남자아이 '소우타'가 투명한 '메이'를 만나며 겪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 '소우타'에게는 메이와 만난 날이 바로 그 순간일 것입니다. 그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등교 중인 소우타의 뒤로 무언가가 따라오는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는데, 어디선가 '하- 하-'하는 숨소리가 들립니다. 시험 삼아 가방에서 공을 꺼내 던졌더니, 역시나 그 무언가가 공을 가져옵니다. 정체불명의 존재가 논바닥에서 구르고 와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진흙 때문에 형체가 드러난 매우 커다란 몸집, 긴 털, 대형견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소우타의 뒤를 따라온 것은 투명한 개 '메이'였던 것입니다.

소우타는 지각할 위기에 처해 우선 개를 그대로 두고 교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메이가 공을 입에 물고 따라오는 통에 어쩔 수 없이 교실 안에 데려오게 됩니다. 덕분에 4학년 2반 교실은 한바탕 소란이 일어납니다. 난데없이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고, 급식을 도둑맞은 아이가 생기지만 투명한 개를 아무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소우타는 더 큰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어쩔 수 없이 개를 데리고 조퇴합니다. 왜 자기만 따라오는 것인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소우타는 친구 미유에게 이 투명한 개의 존재를 알리고, 메이라는 이름도 붙여줍니다. 소우타와 미유는 메이의 친구가 되어 신나게 공 던지기 놀이를 하고 산책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마치 세상이 멈춘 것처럼 느껴지던 그 때, 소우타는 메이와 전부터 알던 사이였던 것 같다고 생각하며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 개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더욱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메이는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소우타의 집으로 달려가 놀라게 하더니, 다시 빠져 나와 근처 신사로 뛰어갑니다. 메이가 갔으리라 생각한 장소에는 갈색 털의 아주 조그만 강아지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강아지의 목에는 소우타가 메이의 목에 묶어준 빨간 리본이 달려 있었습니다. 소우타는 비로소 메이가 자기에게 나타난 이유를 알게 됩니다. 소우타는 강아지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메이라는 이름을 선물합니다.

투명한 개가 자신을 돌봐줄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었다는 독특한 이야기와 그에 어울리는 일러

스트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것입니다. 예상 외의 따뜻함과 감동이 깃든 결말로 마무리 되는 판타지 아동 문학입니다.

<목차소개>

무언가 따라온다 / 나의 결의 / 4학년 2반 플러스 '개' / 교실은 야단법석 / 이름은 메이다! / 메이의 정체

<저자소개>

츠지 타카시(글)

1977년생. 가나가와대학 졸업, 일본아동문학학교의 창작교실을 수강했다. 2016년 제33회 후쿠시마 마사미 기념 SF동화상을 수상하며 데뷔했다.

단지 요코(그림)

일러스트레이터. 도쿄예술대학 미술학부 디자인과를 졸업했다. 《별책 문예춘추》표지, 〈사커 보이즈〉 시리즈, 《마술》, 《큰 숲 속의 작은 집》, 《오즈의 마법사》 등 서적의 일러스트와 삽화를 중심으로 활동 중이다.

No.201611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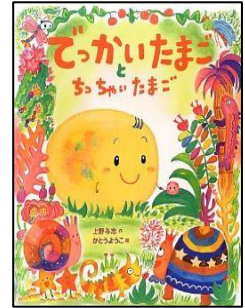
제목: 커다란 알과 조그만 알

저자: 우에노 요시(글), 카토 요코(그림)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 그림책

출간일: 2013년 03월 28일



<내용소개>

아주 커다란 알과 아주 조그만 알이 친구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 너른 들판에 매우 커다란 알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아주 조그만 알이 있었습니다. 커다란 알은 자기가 나중에 무엇이 될지 너무나 궁금해서, 그 내용으로 노래를 만들어 부릅니다. 조그만 알도 나중에 무엇이 될지 누군가 알려주면 좋겠다고 노래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아주 커다란 알과 아주 조그만 알은, 그제서야 서로를 신경 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 차이에 놀라면서도 금세 사이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의 몸이 마구 떨리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알에서 벗어나 무언가로 변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주 커다란 알에서는 공룡이, 아주 조그만 알에서는 애벌레가 태어났습니다. 둘은 모습이 변했어도 꼭 붙어 다니며 사이 좋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공룡에게 크나큰 위기가 닥칩니다. 갑자기 애벌레가 사라진 것입니다. 과연 어디로 가버린 것일까요?

각종 '알'들은 타원형으로 외양은 비슷하지만 제각기 다르게 변합니다. 귀여운 일러스트와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이 생물학적 지식을 함께 배울 수 있는 그림책입니다. 두 주인공이 만든 노래를 리듬을 살려 재미있게 부르면 더욱 즐겁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そして、ふたりで
うたいながら さんぽしました。
♪たん たん たん たん、
たまごから
でっかい すっすい
すっすい でっかい
いのちが いのちが うまれたよ
なんだか すてき!
とってぞ うれしい!



いもむしさんは どこにも いませんでした。

きょうりゅうくんは
さびしくて さびしくて、
まいにち なきつづめました。
あさも ひるも よるも・・・。

<저자소개>

우에노 요시(글)

아동문예가. 1973년에 태어났으며 추오대학 문학부를 졸업했다. 주요 작품으로는 《개구쟁이의 마법 용단》, 〈개구쟁이 특공대 시리즈 18권〉《똑똑똑》《쿵쿵쿵》《큰집 작은집》등이 있다.

카토 요코(그림)

야마나시 현에서 태어났으며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문학부 일본문학과를 졸업했다. 상사 근무를 거쳐 그림책의 세계로 뛰어 들었다. 작품으로는 《한 방울의 이야기》《행복 컬러링 테라피》, 《울보 나무》등이 있다.